



## 도시인 II

Urbanite II

金正寬 / 서울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Kwan

길어진 그림자  
좁은 보도를 덮고  
한 뺨의 햇살은  
빌딩의 이마에 걸려있다.  
가로수 잎사귀는  
가을빛을 담아본지 오래  
비온 뒤 하늘만 청명해  
무심한 잿빛 도시는 우울하다  
빌딩의 계곡을 부는 바람엔  
벌써 겨울 냄새가 묻어나고  
건물 아랫도리에 얹혀사는  
좌판 아줌마 손끝이 시리다  
서글픈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무표정한 타일벽에도 생기가 돌고  
이제사 도시는 움직인다  
햇살에도 나뭇잎에도  
채색되지 않는 겨울색은  
포장마차 백열등에 은밀하게 피어나고  
오뎅국물 후후불며 어깨를 펴는 도시인  
겨울은 여기에 머물고 있다.